

2024 상반기 춘천지역 인문학포럼

화서학파의 학풍과 유인석 문명관의 특징
- '碩果不食'과 '中行獨復'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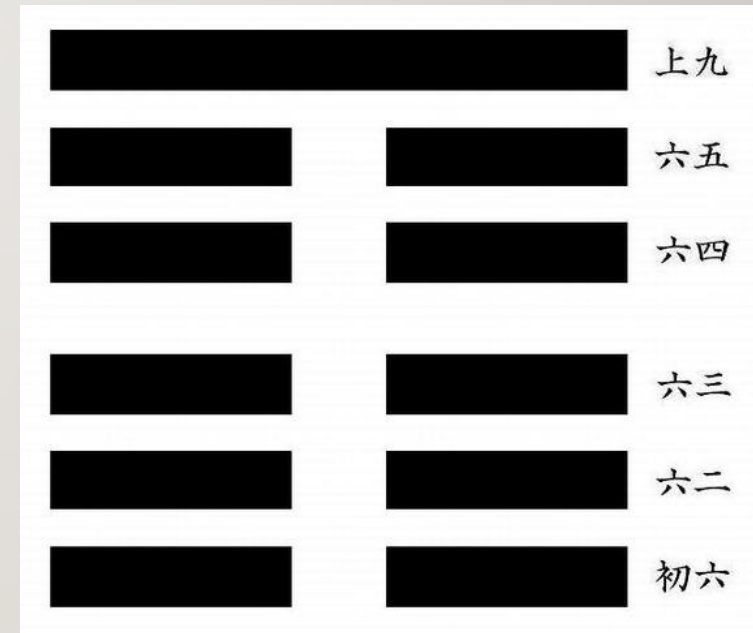
이경구 (한림과학원)

조선 후기의 '조선중화' 인식과 19세기 화서학파의 시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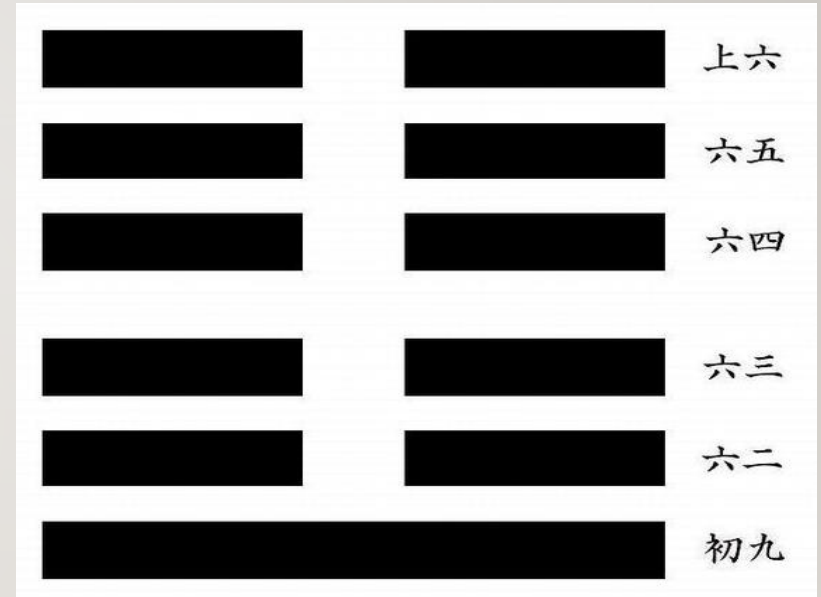
- 유학의 이론과 의리에 기댄 처신
 - 이론은 형이상학/존재론(이기심성론), 수양론, 경세론 등이다.
 - 이론은 가치 판단과 처신의 기준 : 공자 “도가 행할 만하면 출사하고 아니면 숨는다”. 거의 擧義냐 자정自靖이나.
 - 의리론은 유교 문명의 역사 안에서 현재의 시공간을 정위定位하고 개인의 삶을 설정. '시세관時世觀-의리관'이고 이를 보증하는 경전은 <주역>과 <춘추>
- 조선중화주의와 위정척사
 - 17세기 중반 병자호란과 명·청 교체 후에, 조선의 유학자들은 존주론尊周論에 입각한 독특한 '조선중화주의'를 전개. 명의 멸망과 '오랑캐 세상'에서 조선이 유교의 명맥을 간직하고 미래를 위한 보루. 특히 송시열과 노론이 강하게 내세움. 춘추시대 공자, 남송시대 주자, 조선의 송시열 식.
 - 조선중화 논리는 19세기 후반의 위정척사 계열의 유학자들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화서학파에서 공자-주자-송시열을 이어 이항로를 정맥으로 설정
- 화서학파의 시세관과 의리론
 - 화서학파는 조선후기의 의리론을 계승
 - 그러나 시세는 달라짐. 유교문명의 명맥을 부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문명권 자체의 소멸이 점차로 현실화.
 - 이를 수호하기 위해 광대해진 스케일에서 이론을 추론. 역학易學에 더 의지했고, '어두움과 어려움[陰]이 극성한 시공간'에서 유학자-군자의 실천을 제시함. <주역> 박괘剝卦의 碩果不食과 복괘復卦의 中行獨復의 적극적 사용

참고 : 석과불식과 중행독복

- 석과불식은 <주역> 박괘剝卦에서 나옴
- 박괘는 초효(初六)부터 5효(六五)까지 음효이고, 상효(上九) 하나가 양효임
- 음이 자라나 양을 소멸시키는 위기의 추세. 그러나 남아 있는 마지막 효는 양을 지키는 큰 책임을 나타냄
- 上九의 효사爻辭가 “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큰 과일이 먹히지 않는다.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집을 허문다)
-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먹히지 않는 과일이 바로 양으로서 군자이고, 이것이 종자가 되어 훗날을 다짐할 수 있음



- 중행독복은 <주역> 復卦에서 나옴
- 복괘는 박괘와 반대. 초효(初六)는 양효이고, 2효(六二)부터 6효(上六)까지가 음효
- 음이 자라남을 멈추고 이제부터 양이 자라나기 시작함.
- 박괘가 절망과 위기에서의 지키는 책임이라면, 복괘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미약한 양기를 소중히 길러야 함
- 복괘 六四의 효사는 “中行獨復”(가운데에 행하여 홀로 회복하다)”
- 음효의 중간에 위치하였지만 바르게 행하여[中行] 홀로 회복하는 것. 도를 홀로 행하는 군자의 능동적 역할을 보여줌



- 석과불식은 나빠지는 상황 안에서 도를 간직한 군자의 책임을, 중행독복은 미약하지만 점차 개선되는 상황 안에서 도를 길러내는 군자의 역할을 상징한다.
- 음으로 가득하다는 현실 판단은 다르지 않지만, 위기에서 수세적으로 지키는 석과불식의 국면과, 희망을 향하여 준비한다는 중행독복의 국면은 상황의 전환을 보여준다.
- 화서학파에서는 춘추의리에 기초한 존주대의를 계승하면서, 석과불식과 중행독복으로 대표되는 시세 인식을 더해 자신들이 처한 시대가 음이 왕성한 시대에서 최후의 양을 담지한 이들이 해야 할 당위적 책무를 설명했다. 쉽게 말해 의리관 뿐만 아니라 시세관을 더하여 자신들의 처신을 보강하였다.
- 그러나 19세기 중후반 서양/일본에 대한 위기감의 증폭, 1905년을 전후한 일본의 조선 병탄 현실화, 1910년 이후 국망과 중국의 정세는 모두 큰 시세의 변화였다. 각 시점에서 화서학파의 시세관은 미세한 변화나 조정이 없을 수 없다. 1915년까지 생존했던 유인석이 이 변화를 보여준다.
- 본 발표는 박괘의 석과불식과 복괘의 중행독복에 대한 조선 유학자들의 용례 개관, 화서학파의 용례 특징 그리고 화서학파 중에서도 유인석의 특징으로 좁히면서 살펴보려 한다.



석과불식, 중행독복 분석 : 사용 횟수, 사용자

<한국문집총간>
에서 '석과불식'
은 총 151건.

시기 미상 1건을
제외한 150건의
세기별 사용 횟수
와 사용자

15이전	16	16-17	17	17-18	18	18-19	19	19-20
이색(1)	박순(1) 임제(1)	김택겸(1) 신흥(1) 심지한(1) 유원지(1) 이준(1) 이흘(1) 하홍도(1) 황섭(1)	송시열(2) 박세채(1) 이민서(1) 한태동(1)	이만부(2) 권두경(1) 김간(1) 김창흠(1) 서성구(1) 신유한(1) 신익황(1) 윤증(1) 이간(1) 이이명(1) 이현일(1) 이희조(1) 조관빈(1) 조태억(1) 채지홍(1) 한여유(1) 홍수헌(1)	안석경(2) 황윤석(2) 김종덕(1) 박윤원(1) 이인상(1) 임정주(1) 황경원(1) 황윤석(1)	이항로(6) 성해응(5) 윤행임(5) 기정진(2) 정약용(2) 홍양호(2) 홍직필(2) 강필효(1) 변종운(1) 윤종섭(1) 이만수(1) 이장찬(1) 정상리(1) 정재경(1) 정종로(1) 홍경모(1) 홍석주(1)	김평목(9) 유중교(3) 박성양(3) 조병덕(2) 권진(1) 박규수(1) 송달수(1) 송진봉(1) 유신환(1) 이승보(1) 이유원(1) 임헌회(1)	기우만(8) 최익현(6) 송병선(5) 김택영(3) 전우(3) 정재규(3) 곽종석(2) 서찬규(2) 송근수(2) 송병순(2) 이승희(2) 송증현(1) 유인석(1) 이남규(1) 이수형(1) 한운성(1) 허유(1)

<한국문집총간>서
'중행독복'은 총 53
건.

중복 1건을 제외한
52건의 세기별 사용
횟수와 사용자

15이전	16	16-17	17	17-18	18	18-19	19	19-20
최해(1)	이황(1)	심지한(1)	조복양(1)	강박(1) 권중도(1)	황경원(2) 권병(1) 김근행(1)	정약용(3) 성해응(2) 윤행임(1) 홍석주(1) 홍양호(1)	김평목(9) 유종교(3) 송진봉(1)	전우(7) 유인석(4) 기우만(3) 최익현(3) 곽종석(1) 권재규(1) 송근수(1) 정재경(1)

화서학파(화)와 위정
척사(위) 유학자의 '석
과불식', '중행독복'
사용

	18~19	19	19~20
석과불식	이항로(6)화 기정진(2)위	김평묵(9)화 유중교(3)화 박성양(3)위 조병덕(2)위 송진봉(1)화	기우만(8)위 최익현(6)화 송병선(5)위 김택영(3)위 전우(3)위 정재규(3)위 곽종석(2)위 서찬규(2)위 송근수(2)위 송병순(2)위 이승희(2)위 송증현(1)위 유인석(1)화 이남규(1)위 이수형(1)위
중행독복		김평묵(9)화 유중교(3)화 송진봉(1)화	전우(7)위 유인석(4)화 기우만(3)위 최익현(3)화 곽종석(1)위 권재규(1)위 송근수(1)위 정재경(1)위

- 석과불식과 중행독복의 사용은 17세기부터 시작하여 19세기~20세기 초반에 왕성했다.
- 화서학파 또는 위정척사 유학자들의 석과불식 비율은 45.3%이다. 화서학파 또는 위정척사 유학자들의 중행독복 비율은 65.4%이다.
- 당대를 음이 치성한 시대 즉 유교를 중심한 문화 기제, 문명권이 흔들린다는 판단이 19세기에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 그 위기감에서 화서학파, 영남의 퇴계학파(곽종석, 이승희 등), 기타 유학자(기정진 · 기우만, 송병선 등) 등은 학파의 차이를 넘는 동일한 시세 인식을 보였다.

석과불식, 중행독복의 용례

- 첫째 : 당연한 말이지만 <주역> 박괘, 복괘의 해설에 등장한다. (용례 생략)
- 둘째 : 개인/집안의 학문, 역할에 대한 평가가 다수이다.

기정진(1798~1879)의 「慶州金氏世譜序」의 석과불식

별열 집안은 그 당세에는 남에게 미친 공리功利가 있었고, 그 후세에는 자손에게 남긴 법도가 있었다. 발발한 근원이 멀고 심어진 뿌리가 튼튼하므로 불행하게 꺾이더라도 마침내 '큰 과일은 먹히지 않으니' 당연히 수재를 기르고 큰 선비가 나는 것은 故家의 후손에게서 많이 나고, 下戶의 선비들에게서는 보기가 드물다.

영남의 유학자 김낙행(1708~1766)에 대한 권병이 지은 제문에서의 중행독복

아아, 퇴계 선생이 우리의 유학을 집성했는데

猗嗟陶翁 集成東魯

전수함이 오래되자 날로 조잡해졌습니다.

授受既久 日趨魯莽

높은 자는 허황하고 낮은 자는 입으로만

高者廣蕩 陋則口耳

저렇게들 분분한데 누가 보루가 되었겠습니까.

比彼橫奔 孰峙其壘

우뚝하다 선생이여 가운데서 행하여 홀로 회복했다.

卓哉先生 中行獨復



- 셋째 : 암울한 시세에서 의리를 지키는 책임을 표현하였다.

1818년에 홍직필(1776~1852)이 여행하는 강주흠을 송별한 글 - 청이 중국을 차지한 지 200년에 달하는 시점임에도 음이 성행한 세상에서 존주의 의리를 고수하거나 중국에서 이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줌

오늘의 세계는 아득하게 긴긴 밤 속으로 다시 들어가 책을 읽는 종자가 그 사이에 겨우 면면히 이어지니, 저 중국의 궁벽한 산과 먼 바다에 응당 머리를 깎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 죽음으로 지키면서도 도를 잘하는 선비가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九野가 닫혀 추운데도 양의 덕이 매우 빛나고 風霜이 숲을 상하게 하는데도 큰 과일이 먹히지 않는 것과 같으니, 漢의 국운이 중흥하는 조짐이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1907년에 전우(1841~1922)가 <女四書>에 지은 글

내가 근년에 세상의 형세를 보니 오랑캐의 화가 하늘을 삼키고 예교가 땅에 떨어져 相鼠와 有狐의 풍속으로 달리듯 이르러 사람의 도리가 가리워졌다. 이제 이 책을 보니 마음과 눈이 확 트인다. 중행독복하는 현명한 여인들이 있어 漢廣의 노래하는 아름다움이 二南의 교화에 기틀이 됨이 없을 것이라고 어찌 알겠는가. 이것을 세상에 바랄 뿐이다.



화서학파의 특징 - 존주를 계승하는 석과불식

- 이항로(1792~1868)가 본 문명의 위기와 군자의 역할

「周易傳義同異釋義上」(화서집 권29)의 “上九. 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에 대한 견해 : 조선후기 이래의 존주의리와 석과불식의 논리를 계승
요임금 때에 홍수가 천하를 삼켰을 때 우와 직이 치수함. 전국시대에 邪說이 횡행하고 난신적자가 이어질 때 공맹이 이들을 물리침. 五代의 말기에
노불이 횡행하니 程朱가 일어나 정통을 지킴. 명나라가 망할 때 천하가 어지러우니 우리나라의 선비들(*송시열 등)이 존주의 의리를 지킴

- 이항로의 수제자 김평묵(1819~1891)과 유종교(1832~1893)는 서양/일본의 압력과 개항 등의 시대에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서 우리의 역할(특히 이항로)을 석과불식의 공로라고 함.

김평묵 등이 1876년에 개화를 반대하는 장소

병인년과 신미년에 저들의 배가 우리를 침범함에 온 나라가 놀랐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오랑캐를 물리쳤음. 천지에 음이 번성하였으나 동쪽 우리나라는 석과불식과 같음.

유종교의 이항로 평가

일찍이 주자와 송자(송시열)는 저마다 맞닥뜨린 변고에 따라, 각자의 설을 넓히고 깊이 숨어 있는 뜻을 파헤쳐 겉으로 드러냈다. 최근 서양의 나쁜 자들이 온 나라에서 괴상한 짓을 하자, 또 우리 선사이신 이선생(*이항로)께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위정척사'를 행하시어 여러 성현의 뒤를 이었다. ...(연마하여 이항로를 계승하면) 안으로 석과불식의 상象에 대응할 수 있고, 밖으로 맹호재산의 형세를 감당할 수 있다.

- 1895년 전후 을미사변과 단발령은 시세를 더욱 어둡게 함.

최익현(1833~1906)은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래의 일련의 사건을 들어 박괘의 석과불식이 아니라 순음인 곤괘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함. 1898년의 상소

박괘는 여러 陽은 소멸되고 상구上九만이 양효여서 석과불식의 형상과 같으니, 만일 상구의 양효마저 소멸되면 순전한 음인 坤이 되는 것입니다. 곤의 세상이 되면 천하에 陽이 없어서, 여우·삿·솔개·올빼미·도깨비의 따위로 어떤 것이 없겠으며 어떤 괴이한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명 나라가 멸망하고 천하의 막힌 운세가 이보다 심한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만이 중화의 전장을 보존하니 이는 박괘의 상구 효의 석과불식임. 불행히 왜놈과 洋人들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문호를 개방하고 저들의 사학을 전파하고 결국에는 변고가 겹쳐 일어나 심지어 황후를 시해하고 머리를 깎는 데서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희망은 있는가? 최익현과 유종교의 기대

- 최익현, 곤괘의 상황은 바뀔 수 있는가? 천심 회복을 바람

명 나라가 망한 이후로 우리나라는 박괘 上九의 碩果不食의 象과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늘이 재앙을 내려서 더러운 왜인과 양인들이 온 나라 안에서 괴이한 짓을 마음대로 저지르니 ... 금년 8월과 11월 15일의 변(*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온 나라의 신민을 모두 亂賊의 죄과에 빠지게 하여 천하대계에 미세한 양기도 붙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 더 이상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천도가 영원히 가 버리는 이치는 없고, 인심은 반드시 돌아올 시기가 있습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天心이 바뀌어 선악과 화복이 각기 類派에 응하게 되면, 아마도 오늘날 의기양양하여 스스로 오래되어도 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대낮의 도깨비처럼 용납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 유종교는 군주와 군자의 역할을 역학에 기대어 설명함. 「낙서대연국도洛書大衍局圖(낙서를 확장한 국면의 그림)」에서 '가운데 형국[中局]'인 5의 자리에 위치한 군주 또는 세도를 책임진 선비가 어디서든지 도를 회복하는 핵심적 역할임을 피력

한 시대의 천자는 참으로 한 시대 제후 나라의 표준 ... 中局의 가운데 자리와 같다. 한 시대의 천자가 된 자가 이 형상을 깊이 체득하여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다스려 요 임금과 순 임금을 본받으면 고금에 어찌 혼란을 돌려 태평성대로 만들지 못할 세상이 있겠는가? ...

(질문 : 군주에게 항상 기대할 수는 없으니 만약 그 아래에 위치한 선비가 세도의 책임을 질 경우 일반인과 자신을 구별할 수 없으니 어찌 하는가?)

중정의 도리를 안에 지키는 것은 또한 어디든지 펴지 못할 데가 없다. 주역에서 이른바 '세상 따라 변하지 않고, 중도를 행하여 홀로 회복한다.[不易乎世 中行獨復]'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형국의 변화는 때에 따라 변하지만 중심을 향하는 것은 한결같다.... 어찌 중정의 덕을 가진 선비의 중행독복의 형상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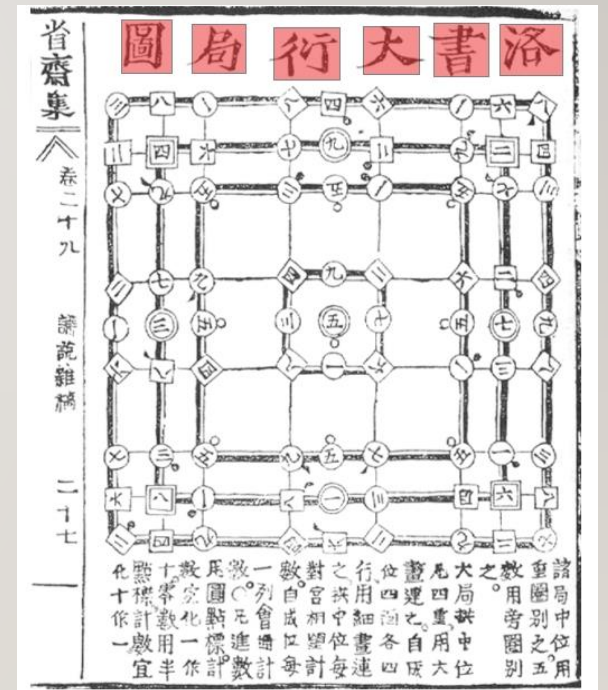
(바깥의) 여덟 개의 5는 질서정연하게 열을 이루고 머리를 모아서 안을 향하고 ... 각각 그 무리를 거느리고 중궁에 조회하는 형세가 있다. 이것이 중행독복일 뿐만 아니라 ...

아홉 자리 속에서는 가운데 자리가 가장 귀하므로 바르지 못한 자가 들어와 거쳐하더라도 역시 전체 형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홉이라는 수에서는 5가 가장 귀하다. 그러므로 자리를 떠나 아래에 있더라도 역시 그의 중정한 덕을 잃지 않는다. 오직 중정한 덕을 잃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역시 전체 형국을 굴리는 이치를 가진다.



참고 유종교의 「낙도대연국도」가 실린 「하도낙서설」

- 하도는 하늘과 땅이 개벽하여 인간 세상의 일이 처음 어슴푸레할 때에 나타났는데, 늘어세운 숫자에는 홀수와 짝수가 서로 엇갈려 배열된 형상이 있다. 그러므로 성인이 이를 본받아 《역》을 지어 開物成務의 응용[用]을 다하였다.
- 洛書는 땅이 평평해지고 완성되어 위엄과 교화가 사방으로 미칠 때에 출현하였는데, 만들어진 자리에는 中과 外가 서로 감응하는 형상이 있다. 그러므로 성인이 이를 본받아 법을 만들어 표준을 세우고 세상을 다스리는 體를 드러내었다.
- 하도의 전개 - 홀수와 짝수가 처음 나누어지는 형상[奇偶肇判之象] / 두 개의 홀수와 두 개의 짝수가 나뉘어 펼쳐진 형상[二奇二偶分布之象] / 숫자 5가 중앙에 자리를 정한 형상[五數定位中央之象] / 숫자 열 개의 자리를 전부 갖추어 모은 형상[十位大全之象] / 하늘과 땅이 서로 끌어안고 사람과 만물이 함께 길러지는 형상[天地交抱人物並育之象] / 사철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짝을 짓는 형상[四時始終相配之象]
- 낙서의 전개 - 음양이 정과 우에 나누어 놓인 음양정우도(陰陽正隅圖) / 오행이 역행하고 상극하는 오행역극도(五行逆克圖) / 사람이 천지의 마음인 인위천지심도(人爲天地之心圖) / 군주는 만민의 표상인 군위만민지표도(君爲萬民之表圖) / 낙서를 확장한 형국인 낙서대연국도(洛書大衍局圖)



유인석(1842~1915)의 시세관 : 1890년대~1908년 국내 활동 시기

- 1890년대 : 조선이 유교의 명맥을 간직한 석과불식 또는 중행독복의 역할이라고 함. 이항로 이래의 화서학파의 견해와 차이가 없다.

1896년의 상소 "공자와 맹자의 2000년의 道脈이 우리나라에서 보존되고 있어 마치 석과불식의 형세와 같다"

1893년에 유종교의 영정을 모신 主一堂을 세울 때 "성학을 전수받아 천하의 종사가 되었고 時變에 의로 대처하여 존양위척하여 공자-주자-송시열-이항로를 이어 천지의 마음을 세운 것이 중행독복의 우뚝함"

- 1905년을 전후하여 진단이 달라졌고 당혹감이 느껴짐

아아, 음양이 屈伸反覆하여 천하에는 일치일란이 있는데 오늘에 어지러움이 극에 달하였다. 중국이 침체되어 큰집은 소란스럽고 우리나라가 홀로 예의의 바른 곳으로 마치 석과불식과 같았지만 아울러 상처를 입었다. 도도한 인심은 대다수가 못되고 방탕해져서 오랑캐를 따르는지라 향상된 정리에 반하고 바른 이치를 잃으니 나는 그 까닭을 모르겠다.

1910년대 중국에서의 인식 변화

- 1908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망명하였고 연해주, 간도 등지에서 무장독립운동. 그리고 1910년에 대한제국은 망함. 망명과 국망은 그의 시세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12년 간도에서 망명한 유학자들이 세운 '宗華契'에 대한 서문
 - ① 조선에서 중화의 예법과 문물을 간직하여 석과불식의 도리를 지킨 것이 실로 다행. ...
 - ② 오랑캐에서 금수가 된 일본이 중화의 명맥을 없애 중화의 의리가 의지할 곳이 없어짐.
 - ③ 뜻있는 선비들이 오랑캐금수夷獸를 피해 '중화를 대종으로 삼는 계'를 조직. 중화가 어느 때인들 대종大宗이 아니겠는가 마는 오늘날 더욱 높이지 않을 수 없음. 중화가 가장 시급. ... 중화의 명맥이 중화계에 기반하여 발하여 천지에 드러나 중화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국내에서 유교 문명의 희망을 말할 때와 중국으로 넘어가 국망을 맞이한 후에 달라진 조건
 - 중국에 간 것은 중화의 공간에 들어선 것이다. 국망은 유교 문명을 지킨 一陽의 道脈이 상실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중화의 공간에서 大宗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고 시급해졌다.
 - 마침 중국은 1911년의 신해혁명, 위안스카이와 쑨원의 일시 연합 그리고 공화국인가 아니면 복벽의 경로(대총통-황제) 인가의 기로에 있었음
 - 한국에서 건너간 유학자들에게 위안스카이의 복벽은 중화 재현의 가능성을 위한 기회로 인식됨

<우주문답>(1913)의 시세관

- 유인석 만년의 노작. 문답 형식의 40조목을 통해 그는 유학의 이기론, 시세론, 윤리론, 東道西器와 中體西用의 절충론 비판, 서양의 자유·평등 개념 비판, 왕정 옹호와 공화정 비판, 서학의 제한적 수용, 일본의 중국 병탄 비판, 중국과 조선의 상호 부조, 단군에 대한 강조, 중국 중심의 새로운 대일통 건설 등을 전개했다.
- 처음에 천지 운세로 시작하여 본문 마지막에서 다시 시세를 논하고, 「낙서대연국도」를 부록으로 실어 마감. 유인석은 만년까지 易學에 기초한 시국의 변화를 사유의 핵심으로 삼았음.
- 본문의 결론은 <주역>의 복괘가, 영원이 아니라 이제 실현되는 것으로 판단
 - ① 조선은 소중화였음. 지금 조선이 망극해져서 석과가 다 먹혔음.
 - ② 그러나 하늘에는 씌없는 도리가 흐르고 양이 다하는 이치는 없다. 박괘가 다하면 복괘가 다시 생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 박괘가 소중화에서 다했으니 다시 근본에서 환원하여 복괘가 대중화에서 생겨서
 - ③ 중화가 회복하고 다시 그것이 동점하여 소중화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실로 바라는 바 ...
 - ④ 총명하여 유덕한 자는 특히 중국을 존모하여 기꺼이 돌아가 <중행독복>을 행하여 모든 나라를 이끌어내어 貫魚以宮人寵(주역 박괘 육오 '관어 이궁인총이면 무불리. 즉 물고기를 꿰어 궁인을 총애하듯 하면 이롭지 않음이 없다)의 상을 이룬다.
- 「우주문답」 본문 결론은 이제까지 석과불식, 중행독복과는 확실히 달라졌다. 즉 '박괘의 종결(조선에서 석과불식하며 유교 명맥을 보존한 역할의 종결) → 복괘의 시작(근본이라 할 중국에서 유교 명맥이라 할 중화가 회복) → 양의 재기(동점하여 조선에서 소중화 회복)'의 국면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할일은 명확해진다. '중국에 대한 존모와 중행독복'의 행위이다.

부록으로 재등장한 <낙서대연국도>

- 유인석은 시세관을 역학으로 증빙하기 위해 「우주문답」 부록으로 유종교의 「낙서대연국도」를 인용하고 자신의 풀이를 더했다.
- 유종교의 「대연국도」에서 이미 中局과 군자의 중행독복의 역할이 강조되었는데, 이제 중국과 중국을 향한 군자들의 영향이 「대연국도」에서 실현되었다.
- 대연국도를 4가지로 총괄했는데 대일통과 소중화의 조화와 귀복을 위한 역할의 강조
 - ① 5가 중앙에 있어 바깥을 통할하는 것은 대일통의 상
 - ② 바깥의 8국이 각자를 주관하는 것은 자기 나라를 주관하는 상.
 - ③ 바깥이 대칭하는 것과 10이 되어 5에서 절충해 얻어지는 것은 중국에 귀복하는 상.
 - ④ 바깥 8국 가운데의 5가 가운데의 5를 향한 것은 외국의 현사가 중국을 숭앙하는 중행독복의 상.

圖局衍大書洛

三八一	八四六	一六八
二四六	七九二	九三四
七九五	三五一	五七三
二七九	四九二	六二四
一三五	三(五)七	五七九
六八四	八一六	一三八
七三五	九五七	五一三
六(八)一	八(一)三	四(六)八
二四九	四六二	九二七

결론

- 19세기 화서학파를 포함한 위정척사의 유학자들은 서양/일본의 압도적인 물리력에 직면하여 유교 문명권 자체의 소멸을 예감하였다. 차원이 달라진 국면에서 그들은 기존의 의리론을 지속하며, 문명권 전체의 운명을 읽기 위해 <주역>의 마지막 양효인 석과불식을 빈번하게 사용하며 위정척사라는 실천의 당위를 찾았다.
- 다만 시기에 따른 구분은 있었다. 이항로가 17~18세기의 인식을 그대로 지속했다면, 김평묵과 유종교는 이항로의 공적을 추가했다. 특히 유종교는 「낙서」를 새롭게 해석한 「낙서대연국도」를 통해 양효의 첫 시작인 군자의 중행독복을 강조했다. 그러나 1895년 전후의 을미사변, 단발령 그리고 1905년을 기점으로 희망은 점점 사라졌다. 최익현과 유인석 등은 이 시기에 석과불식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았다.
- 1910년 전후 유인석은 조국을 떠났고, 국망을 겪었으며, 중국의 변화(신해혁명과 복벽의 가능성)를 경험했다. 이것은 시세관에 변화를 가져왔다. 소중화의 역할이 마감되며 박괘가 끝났고, 중국에서 유교의 명맥이 부활하는 복괘가 시작하였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부활하는 양에 대한 중행독복의 실천이 필요했고 미래는 중국의 중화로의 부활과 중화-소중화라는 전통 관계의 회복이었다. 물론 이는 선언적이거나 상상의 공간이 더 커진 것이었고, 실현되더라도 復辟으로의 퇴행이었다.
- 다만 우리는 당시 유학자들의 독립운동을 민족주의 혹은 시의변통론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불충분함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유교문명권 차원의 구상을 끝까지 견지했고 그에 기반해 시의변통과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굳이 현대식으로 해석하자면 그들은 일종의 '문명 보편주의'에 가깝다.

감사합니다.